

논문쓰기와 표현의 즐거움

이 왕 주

부산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논문, 그 글쓰기의 봉건제

대학이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학생들의 권리에서 그러한 변화는 현저하다. 동아리 활동에서 전권을 쥐는 것은 물론이고 교수 임명, 예산 편성, 등록금 인상 등 학교행정 현안에의 참여와 감시에 미칠 만큼 그들의 목소리는 커졌다. 이제는 권리 확장이 아니라 월권이 쟁점화될 지경에 이르렀으니 '80년대 중반 이후의 십 년은 한국 대학사에서 그 물리적인 길이에 상관없이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 상전벽해의 세월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약진하는 학생들에 비해 교수들의 자

유권 확장은 더디고 지지부진한 형세로 이루어져 왔다. 그것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어온 진보의 수준을 그냥 따라잡는 데에 그쳤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래도 어쨌든 이 더딘 행보에도 연구와 강의 여건에서 이루어진 변화는 이전과 비교하여 금석지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런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증거는 풍부해진 대학의 담론 소재들이다. 페미니즘, 호모섹스에서 포르노그래피까지 거침이 없다. 차라리 마르크스나 레닌에 대한 경배 따위는 속수무책으로 낡아보인다. 금기시 되었던 통속들이 상아탑 안으로 밀쳐 들어왔고 상아탑 안에 유폐되어 있던 순수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갔다. 베를린에서 분단의 장벽이 무너질 때 한국의 대학사회에서는 거의 한

세기를 버티어온 금제의 장벽들이 무너져내리고 있었다. '90년대 학번과 그 이전 학번들 사이에 놓이는 저 아득한 의식의 심연을 들여다 보노라면 현기증까지 느껴질 정도다.

그러나 이 위대한 전환의 시대에 모든 것이 변한 것은 아니다. 박제동물의 눈동자처럼 시간의 흐름을 영원히 비껴선 채 고정되어 있는 어떤 영역도 있다는 말이다. 바로 학문의 글쓰기 현상이다. 이곳에는 아직도 봉건이 있고 식민이 있으며 독재가 있다. 여전히 권위가 무소불위의 전권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우리의 생각을 간섭하고 자유를 속박한다.

우리가 논문이라고 부르는 이 글쓰기는 마치 모든 역사적 맥락을 넘어서는 무슨 선택적 조건이라도 되듯 학자들의 의식 속에서 원형적 차꼬처럼 유전되어 왔다. 글은 생각과 행동에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글의 형식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상아탑에서의 글쓰기는 모노크롬 시대나 컬러 시대나 변함없이 논문이다. 그 논문은 어떻게 '70년대의 돌맹이, '80년대의 화염병, '90년대의 각목을 피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던가. 교수들의 백발에서 연구실의 백색 가운데 이르기까지 상아탑의 모든 백색 신화를 까맣게 덮어버린 저 탈권위의 분진이 어째서 이것은 삼키지 못했는가.

푸코 식으로 말하자면 답은 단순해진다. 그것은 공간 속에 표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의식 안에 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 세기의 연륜을 넘어선 우리 학문의 역사에서 논문이라는 글쓰기 자체가 문제망 속에 포착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권력 형식으로서의 논문

김영민은 『문학과 사회』 제작년 가을 호에 발표한 그의 글 “논문 중심주의와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에서 ‘논문’이라는 글쓰기가 서세동점의 파도를 타고 들어온 권력의 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통박하고 있다.

...그러므로 논문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학자로 행세하려는 자라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하나뿐인 방식이다. 문화적 예측 상태에서 자율적 비판 및 선택의 권리를 망실해버린 채 맹목적으로 따라야만 했던 논문이라는 글쓰기는 우리가 의식하든 말든, 처음부터 우리들을 지배하는 상전으로 군림해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논문은 이 땅의 정신적 자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가장 미시적 지배의 전략-실제 이 전략의 입안자가 있든 없든 관계 없이-으로 기능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신광현은 『사회비평』 제14호에서 거의 비슷한 논지로 논문 형식 안에 은폐된 권력적 속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논문 양식은 논문의 필자를 학문의 영역에서 객관적·과학적 주체로 격상시킴으로써 마치 객관적 진리

의 소유주체일 뿐 아니라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주체로 둔갑시켜 놓는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논문의 주체는 나에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수그러야 하는 합리성 자체로 격상되면서 은밀히 ‘나’가 합리성의 권위를 점유하는 데서 비롯한 지적 우월함을 토대로 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학자들의 글쓰기로서 논문은 은폐된 권력의 형식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권력의 그 배타적 속성 때문에 논문 독재는 필연적 귀결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물음 앞에서 그들은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한다. 먼저 김영민은 새로운 글쓰기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에 선다. 그의 대안은 글쓴다는 행위 자체의 전략성에 초점을 맞추는 ‘잡된 글쓰기’다. 이 타이틀이 암시해주는 것처럼 이것은 형식 안에서 글쓰기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글쓰기로부터 형식을 만들어내려는 도발적인 모험이다. 오랜 모색 끝에 개발해낸 그 성과들을 그는 금년 봄에 발행된 『오늘의 문예비평』 창간 5주년 기념호부터 개진하고 있다.

신광현은 새로운 글쓰기를 창안하자는 주장에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날카롭게 수행한 ‘논문의 권력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논문이라는 글쓰기에 애착을 보인다. 만일 인간 사회의 다차원성, 복잡성, 중첩성 등을 이해하고 표현

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할 수 있다면 논문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말하자면 그가 꿈꾸고 있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이다.

나는 논문이라는 글쓰기에서 보여주는 이들의 비판과 그 대안을 지지한다. 비록 이들의 시도에서 논문 형식의 서양성을 비판논리의 서양성으로 치고있는 순환 모순의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들의 주장에는 학문세계에서 드물게 터져나오는 탈근대의 힘찬 목소리가 스며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논문 독재의 역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결국 서양 존재론과 형이상학이라는 거대한 뿌리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칸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칸트의 관심사는 진리의 탄탄대로를 걸어갔던 학문들의 비결을 찾아내어서 형이상학도 그러한 학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었다. 그가 오랜 숙고 끝에 찾아낸 서양학문의 비결은 이런 것이다. ‘객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면 주관의 개념에 따라서 스스로 그 속에 투입한 것만 받아들여야 한다.’ 이 간단한 결론에는 서양학문이 왜 오직 논문이라는 담론 형식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함축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이 진술은 결국 같은 논리의 틀 안에서 다

음과 같이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세계의 진리를 파악하려면 논문으로써 서술된 것만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상 논문은 주관 객관 이분법이라는 형이상학적 전제 안에 완벽하게 묶여 있는 글쓰기 형식이다. 따라서 논리성, 실증성, 객관성, 경험성 등은 논문의 우연한 특성이 아니라 이러한 형이상학적 전제로부터 연역되어 나오는 필연적 속성이다. 그런 것은 또한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논문을 쓰는 학자가 요구하는 '세계가 존재해야 하는 방식'이다. 칸트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자면 세계에 대해 뭔가 알아내려는 학자는 결코 선생에게서 배우는 겸손한 학생으로 머물지 않고 세계에 대해 판결하려는 재판관으로 군림해야 한다. 세계가 소환되는 그 법정이 바로 논문이다.

이것이 바로 '논문은 권력의 한 형식일 뿐이다.'라는 김영민-신광현 테제가 드러내려 했던 논문의 정체일 터이다. 따라서 논문 독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불가피하게 세계관의 전환 혹은 패러다임 변혁의 시도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은 밖으로, 문화의 서양 패권주의·오리엔탈리즘 등과 싸우고 안으로, 생각하기·글쓰기에서의 식민성과 싸우는 지난한 과제와 뿌리깊게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그런 작업은 이런 규모의 글로써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표현 혹은 글쓰기의 기쁨

내 짧은 글의 목적은 김영민과 신광현이 비교적 소략하게 다루고 있는 한 쟁점을 클로즈업시킴으로써 '권력 형식으로서의 논문'이라는 이들의 테제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토마스 만의 소설 『토니오크뢰거』에서 토니오크뢰거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인간에게 인식만 있고 표현이 주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울해질 뿐이다." 이 주장이 옳다면 논문을 읽는 동안 우리는 한없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쓰는 자의 욕구, 즉 인식만이 있을 뿐 읽는 자의 배려, 즉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논문 문장의 제일 원칙은 의미와 논지 전달에 충실한 간결하고 투명한 문장의 구사다. 그래서 표현의 기쁨을 희롱한 흔적이 보이는 논문은 가차 없이 논의의장에서 탈락되는 운명에 처해진다. 그것은 '그 글이 논문이 아니라 잡문이며 학자의 글이 아니라 딜레탕트의 수필'이기 때문이다. 논문을 심사하는 원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논문은 픽션이 아니다. 논문 한 편을 읽고 그 문체가 주는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일이다.' 그런가. 뭔가 정말 잘못된 것인가. 감동시키는 글, 감동되는 마음이 무슨 죄라도 저지르고 있단 말인가. 왜 논문은 문체의 아름다움으로써 감동을 주어서는 안 되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서양 철학자 중에서도 그 아름다운 문체로써 후대 모든 저술가들의 귀감으로 남아 있다. 그 글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것은 자유고 그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까지도 자유다. 그러나 그의 아름다운 문체를 흉내내서 논문을 쓰는 것은 대학이 보증해주는 승고한 자유의 영역에 전혀 속하지 않는다. 누군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 수필이나 소설이 아닌 한 편의 논문을 쓰려 한다면, 그는 반드시 학술 논문이 허용하는 문체의 형식을 존중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 사상가의 감동적인 문장들에 대해 철저히 무감동적인 문장들을 구사하여 글을 써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화체로만 저술한 플라톤에 대해 대화투 문체로 논문을 쓴다거나, 즐겨 서간체로 글을 썼던 퇴계에 대해 서간체의 논문을 쓰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이들은 모두 표현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때로 과감히 내용의 정확성마저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던 전형적인 스타일리스트들이었다. 그 스타일리스트들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결코 스타일리스트로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왜 그게 잘못된 것인가. 논문 쓰기에서 표현의 기쁨을 찾는 일이 무슨 죄라도 된다는 말인가.

여기서 나의 제안은 논문의 문체에 경직된 금체들을 풀어 나가자는 것이다. 김영민은 문체의 강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한편에서는 철학자연하

는 문투만 보이기 시작하면 등단을 폐방하고, 다른 편에서는 수사만 좀 깊어지면 무조건 질문 나부랭이로 폄하하려는 태도는 아직도 문학과 철학의 상극적 대결 구도에 빠져있는 이 땅의 정신문화적 강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광현 역시 앞의 논문에서 논문 문체에 대해 이렇게 주장한다.

단순하고 투명한 문체와 단선적인 문장의 연결은 표현될 사고와 주장도 단순하고 단선적일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논문의 문체는 대상을 단순하고 단선적이며, 기계적인 것으로 변형시킬 것을 강요한다. 사고의 내용이 무엇이거나 다루는 대상이 어떤 것이거나 논문의 문체는 모든 것을 무차별하게 ‘논문화’하면서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파괴적으로 논술의 단일차원에 들어맞도록 환원해버린다. 한마디로 말해서 논문의 문체로써는 인문적 사고의 자기반성적 깊이와 변증법성은 물론 대상 세계의 상호연관성, 복합성, 다차원성, 중첩성, 역사성을 표현하기 어렵다.

나는 문체에 관한 한 이 두 사람보다 더 극단한 입장에 서려 한다. 단지 문체의 유연성, 다원성만으로는 논문을 쓰거나 읽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우울이 치유될 수 없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녕 논문에서 표현의 기쁨을 누리려 한다면 문체에 대한 금체 자체를 풀어버려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글쓰기가 학문의 담론 공간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왜적의 진주성 공격’이라는 역사학 논문에서 건조하고 투명한 논술체 이외에 다음과 같은

문체의 서술도 용납하자는 말이다.

1593년 유월

왜적은 15만 대군을 휘몰아

진주성을 향하여 진군하네.

왜적들은 거침없이 진주성에 접근하고

드디어는 1593년 6월 20일에

왜적의 선봉대가 진주땅으로 들어오네.

그때 진주성에 머물러 죽을 때까지

싸우리라 다짐하는 사람들은 많았네.

의병장 김천일의 오백 군사,

충청병사 황진의 칠백 군사,

산청현감 장운의 삼백 군사,

병사 최경희의 육백 군사,

.....

군사는 도합 5천여 명 남짓이고

성 밖에 살던 사람 성 안으로 들어와서

백성을 모두 합하니 7만여가 되었네.

.....

축석루 지휘소에서 함락된 성을 바라보다

김천일, 최경희, 고종후, 양산숙은

어찌해볼 수 없는 절망에서

북쪽을 향하여 네 번의 절을 하고

시한 수를 남겨둔 채 남강에 몸을 던지네.

.....

나머지 살아있던 장수며 백성들도

이들의 뒤를 따라 남강 물의 혼이 되네.

이날은, 이날은

1593년 6월 29일이었네.

7만여의 목숨들이

장엄하게 죽어갔네.

이것은 정동주의 장편 서사시 '논개'에서 인용한 것이다. 비록 시문체로 이루어졌지만, 여기에도 정보가 있고 서술이 있으며 주장이 있고 변론이 있다. 어

떤 문체의 글이든 담론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담론의 공간 안에 받아들여서 쟁론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맥루한이 주장했듯이 매체 자체가 메시지이며 내용은 형식에 의해 구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논문 문체가 논지 제시의 투명성, 정밀성에서 많은 약점을 지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에 너무 일찍 비판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그 절대 장벽의 결과일 뿐 아니라 그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모든 도전의 가능성들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래야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정밀성, 투명성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다.

부디 이 글을 쓰는 나의 근본 의도가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나 역시 논문이 학술 영역에서 아직은 경쟁상대를 갖지 않은 독보적으로 탁월한 글쓰기 장르임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돈키호테식 주장을 전개하는 것은 논문쓰기에서 인식의 행복만이 아니라 표현의 기쁨도 함께 만끽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믿음에 끝까지 매달리고 싶기 때문이다. ♣

이왕주/경북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선대 전임강사를 거쳐 현재 부산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철학풀이, 철학살이』 등이 있고, "존재의 진리와 예술의 본질", "기술과 예술", "철학적 해석학의 실천개념"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